투표날에도 '알바'해요…청년 열정페이 대안, 고민은 해봤나요?

김연주(여·21·전남대 경영학부 2년)
이대건(21·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1년)
박영하(여·22·동신대 한의예과 1년)
정희찬(22·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년)
진행=김지을 기자

젊은이들이 아우성이다.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버겁다", "대학 졸업을 미루며 스펙을 쌓아도 직장 잡기가 바늘구멍 뚫기다", "'흙수저 청년' 들은 금수저·은수저와 출발선부터 다른데 '노력이 부족하다'고만 질타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턱까지 차오른 불만을 꾸욱 참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왜 조용히 있느냐", "가만있으니, 참여하지 않으니 이렇지 않느냐"며 몰아붙이는 기성세대에 항변한다.

김연주, 박영하, 이대건, 정희찬씨와 함께 젊은이들, 청년들의 고민,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4·13 총선을 앞둔 시기, 공감할만한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기성 정치권의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선 새내기 유권자 4인이 뭉쳤다. 정희찬(왼쪽부터), 김연주, 이대건, 박영하씨는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는 4월 13일 총선이 실시된다.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면서 투표하지 않는 어른들도 많다. 올해 첫 선거권을 얻었는데 투표할텐가.

▲대건 - 생애 첫 투표라 당연히 할 테다. 하지만 내 한 표가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현재 정치권 돌아가는 것 보면 내가 뽑은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뽑힌다해도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회의도 든다.

▲희찬 -저절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인물난도 심해지는 것 같다.

▲연주 - 대학생 등 청년층의 최근 관심 분야는 취업, 등록금 문제 아니냐. 그런데 정치인 공약은 우리 대학생들과 한참 거리가 있다.

▲영하 - 영남권에서 태어나 호남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데, 동기들끼리 투표해봐야 사표(死票)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당연히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 국회의원님들, 제 말 좀 들어보시렵니까

국회의원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나.

▲영하 -안타깝지만 '비리'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연주 - '가면'이라는 단어다. ▲희찬 - 겉과 속이 다른 것.

▲대건 -당선만 염두에 둔 번지르르 한 달변.

호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일변도에서 더불어 민주당·국민의당 두 갈래로 나눠졌다. 이번 총선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생각인가.

▲희찬 - 정당을 보고 뽑진 않을 거다. ▲대건 - 현실성 있는 공약, 젊은이들이 관심가질만한 정책을 내놓는 후보 뽑을테다. 정당 전혀 안 볼 것이다.

▲연주 - 어느 당인지 대신, 정치인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 지 여부를 살필테다.

▲영하 - 조금 다르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특정 당에 가입한 순간 그 정당을 대표하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다. 당도 봐야한다고 생각하다. 물론,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인물을 택할 것이고 정책은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려 하는지'가 우선 대상이다.

젊은이들의 투표율 저조, 낮은 정치 참여 의식 때문에 정치가 발전을 못한다고 기성세대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동의하나.

▲대건 - 무조건 탓하는 게 바람직한가. 젊은 세대가 왜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하는지 생각이나 해봤나 묻고 싶다.

▲영하 - 우리 젊은이들이 맞닥뜨린 고민, 숙제를 생각해봐라. 솔직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수업 따라가기도 힘들다. 취업 스펙 쌓는 시간도 부족한데 사회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생각 갖는 것, 현실에서 쉽지 않다.

▲연주 - 우리 학생들이 관심 갖지 않게 만든, 기성 국회의원 책임 먼저 생각해봐라.

또래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희찬 -우리에게 와닿는, 공감할만한 정책좀 내놓고 목소리를 외치면 자연스럽게 투표율 올라가지 않겠나.

SNS 홍보도 좀 해라. 정치인·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 등 젊은 대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관심끌만한 이벤트·주제로 오게 만들어라.

▲연주 - 학생들과 직접 관련 있는 총학생회나 단과대 선거 투표율도 50%를 못 넘어 무산되기도 한다.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것도 원인이다.

입사 전형 때 같은 성적이라면 투표한 지원자를 뽑는다는 대기업도 있다고 들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정치인 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투표 독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 사회 공헌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대건 - 젊은 층이 이해할만한, 공감할만한 공약 내세우고 홍보한다면 투표장 가는 발길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영하 - 청년층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후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다. 공약·정책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 기회를 많이 마련했으면 한다. 말로만 투표 참여를 독려하지 마라.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쉬는 줄 아나. 아닌 경우 많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

그럼 젊은이들이 공감할만한 정책 좀 제안해달라.

▲대건 - 말이 필요없다. 취업 문제다.

▲영하 - 등록금 문제도 절실하다.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장학금도 그렇다. 그런데 장학금 신청자들의 소득 분위 산정 체계나 변경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성적 장학금도 그렇다. 등록금은 학기별로 몇 백만원을 내는데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몇 십만원 수준이다. 달라져야 하지 않나.

▲연주 -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수업을 버겁게 따라가는 사립대 학생들이 무척 많다. '열정페이' 로 고민하는 동기들도 많다. 살펴봐달라.

▲대건 - 광주시장이 주관한 청년 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들어봤다.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체감하기 어렵다.

젊은이들, 어떤 직장을 선호하나.

▲희찬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현실이다.

▲영하 -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금전적인 불만은 없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행복하다는 젊은이들도 많다. 물론, 대학 입학 뒤 1학기만 학교 생활을 즐기다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나 스펙을 위한 대외 활동에 '올인'하는 친구도 적지 않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연주 -3년 넘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 대학 선배들, 많다. 안정된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것 같다.

▲대건 -경제력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젊은이들 고민들을 제대로 듣고 덜어주는 정책, 나라와 정치권이 할 일 아닌가 싶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국내 현안을 꼽아달라.

▲대건 - 취업 정책이다. 청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내놓고도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

▲연주 -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지 않나. 소모적인 정쟁, 갈등만 키우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안건이 뒤로 밀리고 있다.

▲희찬 -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그들만의 특권 의식은 여전하다. 사회의 '을'이라는 계층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영하 -'수저계급론'과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하기가 버거운 현실이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청렴도를 높일 정책과 검증 대책도 필요하다.

/정리=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